

충청대학의 전력분야 기초인력양성사업

충청대학편

이해기
충청대학 교수



이은욱
충청대학 교수



대학 졸업생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다.” 전기관련 사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의 한결같은 말이다. 현장에서 원하는 기초적인 지식마저도 습득하지 못한 졸업생을 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반갑게 맞아들이는 곳은 아무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졸업생들에게 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 능력의 기대치는 높기만 하다. 충청대학은 산업체와 대학교육의 괴리감을 줄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관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 지역 산업체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사업(총괄책임 이해기 교수, 실무책임 이은욱 교수)에서 충청대학 전기전공이 선정됨으로써 2002년과 2006년에 이어 전국 최다인 3회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 번씩이나 선정된 이유는 산학연계 구축이 우수하고 인력양성 배출 성과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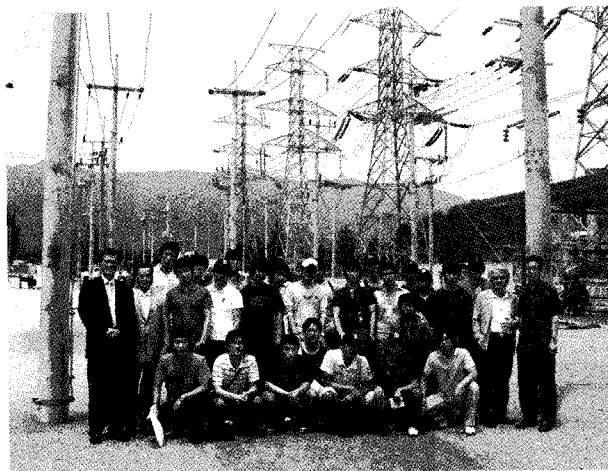
누리(NURI)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시행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산업체에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대학교가 중심대학이 되어 협력대학 자격으로 5년간 30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기초인력양성사업, 누리사업 이외에도 산·학 협력 중심대학사업에도 선정되어 2003년부터 영동대학교와 함께 5년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9년에는 중심대학으로 산·학 협력 중심 대학에 참여하여 5년간 5개 학과에 매년 5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초인력양성사업 총괄책임자이면서 전국 전문대학 기초인력양성사업 협의회장인 이해기 교수는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서 기초인력양성사업과 누리사업, 산·학 협력중심대학사업 등에 모두 선정된 학과는 유일하게 전기전공뿐이라고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충북지사와 충청대와의 공동 농촌 전기봉사활동



대원전기교육원에서 배전실무 교육

취업률 100%에 도전 한다!

2005년 96.9%로 전국 1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중 취업률 전국 1위, 2006년 97.4%로 충청권 및 수도권 대규모 대학 취업률 전체 1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대학 취업률 현황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학교 주변에는 인력 수요가 많은 LG그룹(전자, 화학, 산전, 생활건강 등)과 하이닉스반도체 등과 같은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청주 산업단지를 비롯해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취업이 매우 유리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대기업과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기업체 등에 취업,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취업률 100% 달성과 질 높은 취업을 위해 200여개 산업체와 산·학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률이 향상되면서 많은 학사 편입 및 만학도들이 충청대학 전기전공에 재입학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권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와 상호 연계교육협약을 맺어 졸업생들로 하여금 충북대학교 전기전공에 무시험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국 1위

전기설비의 공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필수요건인 국가기술자격은 취업에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높은 보수 또한 보장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동계방학 중에 필기특강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특강을 실시하는 등 연중 계속해서 국가기술자격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13명, 2008년 15명, 2009년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매년 졸업생의 30%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국 대학이 5% 수준의 합격률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좋은 성과이자 전국 제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률로 손색이 없다.



충청대학교와 중심대학의 누리사업 공동 현장견학



일본 미쯔비시자동차 해외연수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기초인력양성사업은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전력산업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 국고 지원금의 50%를 과감히 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기전공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100%의 신입생 입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전기전공에 입학하고 있다.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은 국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다는 자긍심으로 졸업 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글로벌 마인드 인재 양성

전기전공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국가 기간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 있다. 또한 대기업 연수 및 해외 우수업체 견학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자기개발의 기회제공은 물론 우수인력 양성 배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학생들은 일본 산요전자와 미쯔비시자동차 공장, 홍콩과 중국의 첨단시설 등을 견학하였으며, 매년 LS산전과 대원전기 연수원 방문을 통해 전력설비와 관련한 연수를 받는 등 신기술 연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KEA